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68호 [루계 제23385호] 주제100 (2011)년 3월 9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를 협력으로 하신 소식을 3일과 4일 중주, 로씨야, 체스코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는 최근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를 협력으로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연구집단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날개를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에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확증하였다.

그이께서는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같이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절저히 구현해나간다면 나라

의 모든 부문을 젊은 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이루할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이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혁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실험을 밀접히 결합시키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미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현대적인 온실들을 여러곳에 일렬로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들을 더 많아 공급해주어야 하며 시내의 곳곳에 꽃밭들을 차례놓고 잘 운영하여 인민들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3월 1일에 출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으로 작들을

여러나라에서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출판하였다.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를 로씨야 하바롭스카야 크라에 바야 씨 보그라피야 출판사에서 2월 14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일동지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걸출한 령도자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송

국제사회계는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명의 공헌을 하고자 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

방글라데시민련맹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활생일은 대

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조선인민

의 최대의 민족적영절뿐아니라

한국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주체혁명워업의 및나는 계승자이

신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인민과 전보적인류는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김정일동지는 만개제자주위업을 끝바

른 승리의 한걸로 이끄는 세계 진

보적인민들의 걸출한 령도자이다.

로드니아 사회주의의 당 차기 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주위업에 창아

울리신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함

없는 존경과 흠토를 받고계신다고

말하였다.

이진트아람에 솔문화공보협회 총

서기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인류 역사에 정의의 대변자, 응호자, 수호자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김정일령도자처럼 별의에 대한 비타

협성과 투철한 정의의 감을 가장

숭고하고 높이에서 지니고 강위력한 선

군정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침략행위를 단호히 짓부시며 정의와 평화를 결집히 운호해나가는 그런 위인

이 언제, 어느 시대에 있었던가.

초월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뜻깊게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맞이하는 인류공동의 명절은 없다.

그 어떤 강원행위도 단호히 거부하

버리는 정의와 진리수호의 담력을

라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핀란드신문 『ყាង აე ანე』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자주 위엄의 앞길을 밝히신

김정일동지의 사상론적입체에서

언금에 언금해야 할것은 선군사상,

선군정치이다.

오늘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반제

투쟁의 힘승의 무기, 자주위업실현

의 만능의 보검으로서 국제사회의

각별한 주목을 끌고있다.

김정일동지는 만개제자주위업을 끝바

른 승리의 한걸로 이끄는 세계 진

보적인민들의 걸출한 령도자이다.

로드니아 사회주의의 당 차기 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혁명의

주체의 굳건한 혼연일체와 강대한 군

사적위력, 견결한 자주적립장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존경을 받고있다.

공화국은 오늘날 사회의 혁명, 인민들과 나라들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승리의 기치가 있다. 그이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신

정치가이시다고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혁명의

주체의 굳건한 혼연일체와 강대한 군

사적위력, 견결한 자주적립장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존경을 받고있다.

이런 믿음은 강자가 되고 남을

나는 약자가 된다는 것인 김정일령도자의 척화이다.

이런 믿음은 강자와 함께하는 인민을 선생으로, 하늘로 여기신다.

그이의 믿음이 너무도 고마워 그이

인민들은 더욱 그이를 따르고 지지해나섰다.

령도자와 사상과 뜻, 호흡과 운

명을 함께 하는 천만군민의 비상한

혼연일체는 마침내 조선에 강성대

국건설이라는 혁사의 새시대를 안아왔다.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그를

온 사회에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여 사회주의를 수호하였다.

백두산체스포선선협회 블레

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투철한

동지관에 대하여 전하면서 혁명은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동지를 위해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진실한 동지를 얻을수 있는 것이 김정일령도자의 확고한 신조이라고

강조하였다.

파크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탐임

스』는 김정일동지는 인민에 대한 결

대적인 믿음을 지니신 정치가이시라

고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인민중의 힘에 믿음을 헌치면

하늘을 이긴다. 이것이 힘과 승리에 대한 김정일동지를 칭송하다.

지난 세기 말엽 척화의 시련속에

서 일어서지 못할것 같던 조선민

이 혁사의 승리자로 솟구칠수 있게

한 중요한 비결은 바로 인민에 대

한 그이의 믿음이었다.

캄보자신문 『크마에 아마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을 선생

으로, 하늘로 여기신다.

그이의 믿음이 너무도 고마워 그이

인민들은 더욱 그이를 따르고 지지해나섰다.

령도자와 사상과 뜻, 호흡과 운

명을 함께 하는 천만군민의 비상한

혼연일체는 마침내 조선에 강성대

국건설이라는 혁사의 새시대를 안아왔다.

[조선중앙통신]

불라는 충정과 비상한 창조정신으로 생산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대중의 심장에 불을 끄는 화선식정치사업

덕천지구 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들파 탄부들의 충천한 기세

에 맞게 모든 당조직들이 인

민생활항상 대진군을 앞장에

진공적으로 벌려야 하며 근로자들이

다발하고 진공적으로 혁명을 성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높은 정신으로

적열성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를 로씨야 하바롭스카야 크라에

바야 씨 보그라피야 출판사에서

2월 14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송전선에 라오르는 대고조의 불길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

기판차와 화차들을 보장해 주기

위한 대책을 기동성 있게 세우

는 한편 자체의 물질기술로 대

를 투신히 다지고 강철같은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 되어 대중을 생활대에 펼친다

는 태도로 일관되게 헌신하고 있다.

이 되어 대고조의 불길이 라오르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

제 2 편 승리의 프로그램

나는 『련하기계』를 사랑합니다.
『련하기계』는 선군시대 기계공업의 훌륭한 상징입니다.

김정일

온 나라의 CNC!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처음부터 크게 걸고 시작하신 거대한 사업이었다.
시작부터 그이께서는 이미 승리의 프로그램을 안고 계시였다.
첫 단계는 재래식기계를 들어내고 CNC 기계로 바꾸는 단계였다면 둘째

단계는 한개 가공구역을 자동화된 유연 생산구역으로 만드는 단계였고 세번째 단계는 한개 공장을 통째로 CNC화하여 통합생산체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그 세번째 단계에 이어 또 어떤 새로운 단계가 놓여있는지 우리 장군님밖에 아직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구면친구》

2007년 5월 30일이었다.

CNC선반작업장에 들어서 신장군님께서는 희한한 화폭속에서 발걸음을 풀지 못하였다.

『련하기계』라고 쓴 CNC작업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것이다. 현지지도의 길에 퍼포먼스 경쟁을 했을 때에도 『련하기계』라고 쓴 CNC작업기계만 보이면 절로 마음이 개운해지는 그이였다.

공장의 지배인이 장군님의 그 심정을 알아차렸듯 작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CNC작업기계를 다루는 기대공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운정으로 1년동안 컴퓨터를 나왔습니다.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룬다니. 지난해보다 기능공들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점점 열기가 오르고 있었다.

CNC작업기계로 하여 전에 없이 환해진 현장을 감회 깊이 보고 또 보시며 장군님께서는 조용히 외우시였다.

『〈련하〉가 고생을 많이 했소. … 정말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

장군님의 눈시울은 축축히 젖어드는 듯하였다.

부강연영 할 미래에로 부르는 평도자의 뜻을 제일 먼저 이해하고 따라나선 철단의 선구자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어린 헌의 말씀이었다.

장군님의 깊은 추억을 깨칠세라 도의 책임임 군이 정중히 아뢰었다.

『장군님, 우리 도의 기계공장들이 이제는 〈련하기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시면서 서둘러 말로 거듭 외우시였다.

『〈구면친구〉가 되었어. … 〈련하기계〉는 나에게 아주 낮이 익은 〈구면친구〉가 되었소. …』

참으로 깊은 내용이 실린 말씀이었다.

말 못하는 기계를 『구면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깊은 뜻을 읊미해 볼수록 CNC역사에 깃들어진 철세의 위인의 남보르는 로고의 자취가 가슴속에 스며들었다.

그렇게 한대 또 한대 늘어나는 『구면친구』들을 보실수록 장군님께서는 마음 속에 혁명의 힘중한 제부인 『구면친구』들을 들어내는 창조의 인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더욱 더 깊이 간직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다른 한 기계공장도 돌아보시였다.

『이 직장만 천수백명이였습니다. CNC

를 도입해놓은 다음부터는 50명이 합니다. 교대당 15명입니다.』

『CNC단하구만.』

『이 공장 동부들이 나라에서 받은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는가 두달동안 모색했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사오면 설비 몇대밖에 사오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련하기계』 동부들이 달라붙어 우리식으로 만들었는데 현대적이며

느끼도 좋고 생산성을 높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였다.

우리의 CNC기술이 이제는 무성하게 아

큰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주파수는?』

『주파수 안정도 걱정 없습니다. 〈련하기계〉에서 전압주파수 안정기를 들여왔습니다. 〈련하기계〉에서 만든 것이 아주 좋습니다. 주파수와 전압이 내려가도 정상전압과 주파수를 유지합니다.』

『그래…』

『서희들이 CNC에 깜깜이다니니 처음에』

는 CNC기계들을 비싸게 사았습니다.』

『그 그래서.』

『그럼에도 지난해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에서 주신 CNC화의 다음단계과

업을 판찰하기 위하여 현하기계판리국 동

무들과 충돌투의하고 타산하니 돈은

적게 들이면서도 설비를 잘 갖추어 생산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몇이었어. 표준공장이 되었소. 로력을

모두 얼마 줄었소?』

장군님의 물음에 도장책임일군이 말씀드렸다.

『이 직장만 천수백명이였습니다. CNC

를 도입해놓은 다음부터는 50명이 합니다. 교대당 15명입니다.』

『CNC단하구만.』

『이 공장 동부들이 나라에서 받은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는가 두달동안 모색했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사오면 설비 몇대밖에 사오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련하기계』 동부들이 달라붙어 우리식으로 만들었는데 현대적이며

느끼도 좋고 생산성을 높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였다.

우리의 CNC기술이 이제는 무성하게 아

크를 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궁지높은 현실이었다.

기쁨으로 홍성이는 가운데 공장의 당비서

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정중히 말씀드렸다.

『우리 공장은 2001년 장군님의

현지지도부로부터 〈련하기계〉와 계속 협

력했습니다.』

초기에는 〈련하기계〉가 좋고 나쁘고

하는 말도 더러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장의 현실을 보고는 모두 눈이 휘

둥그래서 〈련하기계〉만 요구합니다.』

장군님께서는 그 말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잘했소.』

『련하기계 사람들이 정말로 큰일을 하

였습니다.』

장군님의 호방한 말씀에 미래에로 가는

조국의 발길을 더욱 빨라지는 듯 하였다.

그 열마후 〈련하기계〉 판리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박사칭호를 비롯한 학위가

수여되었다.

그리고 일군들은 눈시울을

砸쳤습니다.

그리고 일군들은 눈시울을

선군령장의 축복 속에 찬란히 꽂펴나는 주체미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만수대창작사와 같은 대
미술창작기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
큰 자랑입니다.』
지난 1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현지지도하신

만수대창작사를 찾아서

만수대창작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현명한 영도밑에 굽지의 대미
술창작기지를 당처진 환희로
현실과 더욱 밝은 밤을 레일에
대하여 가슴벅차게 새겨안을
수 있었다.

는 구내

탁판에 더욱 복돌이주는 힘있
에 들어서는 우리의 눈앞에 깊
은 감동을 자아내는 광경이 펼
쳐졌다.

주제 9 (2004) 년의
태양절을 맞으며 새로 모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훌륭히
형성된 그 주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판, 황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말씀판…

지난 기간 주체미술의 대걸상
기사를 마련하는 서와 대기념비
작건물들을 일떠세우는데 크
게 공헌한 만수대창작사와 같은
대 창작기지를 마련해 주신
백두산원인들에게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끌어올라 샘솟아왔다.
그와 더불어 번영의 냄새
와 냄새를 풀기 차게 이어온 전
과정에 혁명적 수령판을 확고히
세우고 철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수하고
빛내여온 이곳 창작집단의
승고한 사상정신세계가 가슴뜨
겁에 안겨왔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을 그
고결한 충정과 애국의 열정을
소중히 새겨보는 우리의 마음
을 전반적으로 구획형성의 절
되고, 예술화를 훌륭히 실현된
구내의 면모가 또한 한없이 기
쁘게 해주었다.

미술창작기지답게 조화롭게

단장된 공연조각창작단과 미술
작품전시관 등 여러 건물들이

특색있게 건설된 문화회관,

다양하고도 생동한 인물 및 동
물조각들, 레일에 대한 신심과

설비들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
에 맞게 마음은 대로 현대화
하고 있다는 창작사책임일군의
이야기가 우리의 흥분을 더해
주었다.

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일해 왔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는 만
수대창작사의 일군들과 근로자
들이 높이 존경생의 혁명정신
을 높이 발휘하여 창작사를 선
군시대의 맛이 나게 훌륭히 꾸
린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
서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의 모
범을 따라вед아야 한다는 크나
큰 영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
습니다.』

격정넘친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따사로운 해빛
아래 더욱 밝은 구내를 다시 한
번 둘러보았다. 그릴수록 데일
두고 길이 전할 줄만 같은 영광
과 행복에 겨워, 보답의 일념
에 넘쳐 비약의 나래를 더욱
세차게 펴며 창작가들을 만
나보았고 깊은 창작가들의 열정은
차울랐다.

드세찬 명작창작의 불바람

우리가 들린 조선화창작단
에서는 불과 몇몇의 화가들이
붓을 달리고 있었다. 알고보니
많은 창작가들이 현지취재와
초안창작을 위해 들끓는 대고
조전투장들에 달려나간것이
였다.

황철, 흥남, 회천, 경공업
공장들과 협동농장들,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

우리와 만난 창작단일군인
장용남동무는 조선화창작에서
시대적 요구와 우리 인민들의

고유한 기법과 특성을 잘 살펴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가르침처럼 창작가들의 비약의
기운으로 창작을 펼쳐나갔다.

누구나 미술의 대가이신

위대한 스승을 모신 한없는 영광
과 궁금증으로 가슴풀리며 물들은
현실에 몸을 쭉 침그고있다고 하
면서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주정이 강하며 감화력이 큰 작
품, 조선화의 기법과 특성이
살아나는 본보기작품들을 내놓
는데 모든 창작가들의 사색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의 창작성과 함께 대단히 확장된
창작가의 영역은 창작가들
의 고장이며 창작가들이 창작
작품을 보다 활짝 펼쳐나간것이
었다.

창작단에서 태양절을 맞으며
내놓게 될 선운으로 빛나는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을 형상화
한 조선화작품들도 이곳 창작가들
의 꾸준한 사색과 불타는 열정
에 의해 시대의 막으로 훌륭
히 완성되리라는 확신을 안고

것도 문화회관의 품위를 한결

높여 조명을 보다 활하게
하여 보는 사람마다 숨엄한 감
여를 자아내게 하였다.

천정부분에 조선화봉, 조각칼,
유화붓과 목란꽃을 형상화한 돌을
먼저 조명을 하여 한결 아하고
포근한 감을 주었다면 위대한
장군님의 친환경제가 모셔져 있
는 앞면에 끝으로는 천정을 점
차 높이고 조명을 보다 활하게
하여 보는 사람마다 숨엄한 감
여를 자아내게 하였다.

장군님께서 그처럼 깊이 평가
해주시길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
였다고 천정을 떠올렸다.

모여 우리 조국의 미래가 영
원히 창작하듯이 천정방향을
위해 축복을 받아안은 만수
대 창작사의 앞길에도 끝없는
번영의 길이 펼쳐져 있다.

본사기자 글로 혁
백성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 국 AP통신사 총사장일행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8일 토마스 커리
미국 AP통신사 총사장과 일행

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
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
치시었으며 세계와 협력으로 불
꽃을 전진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조로예술인들의 합동공연 진행

3. 8 국제부녀절에 즐음하
여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삼
지연악단과 로씨 2 1세기판
현악단의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합동공연이 8일 동평양대극장
에서 진행되었다.

성·중악기판 일군들, 문학에
술, 춤판보도부문 창작가, 예술
인, 기자, 언론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라리), 합창(『찬란한 미래 향
해 앞으로』), 이전 쏘련노래를
인 혼성 2중창 『은방울꽃』,
혼성 8중창 『축배』, 이탈리아
노래 혼성 4중창 『그네를 위
해 내가 산다』, 격정 2인무
『나를리파 라란엘라루무곡』 등
을 공연무대에 올렸다.

공연은 높은 예술적 기교와
훌륭한 형상으로 하여 관람자
들의 절찬을 받았다.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공연
을 진행한 크나큰 감격을 안고
조로예술인들은 이날 다채로운
종목들을 펼쳐보았다.

두 나라의 인민배우, 공연배
우들과 국제콩쿠르상자들을 비
롯한 이름있는 지휘자, 연주가,
여비이수령님의 한생을 형상화
한 조선화작품들도 이곳 창작가들
의 꾸준한 사색과 불타는 열정
에 의해 시대의 막으로 훌륭
히 완성되리라는 확신을 안고

결합시킬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받았고 1호발전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합경부도
과학기술정보 연구소들과 함
침하여 발전기들의 기술적 특성
과 가동상태를 구체적으로 관
찰하면서 최신기술도입을 위
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미국 AP통신사 총사장일행 도착

【평양 3월 8일 발 조선 중
양통신】 토마스 커리 미국 AP
통신사 총사장과 일행이 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 서
김창광 조선
중앙통신
부사장이 맞
이하였다.

협동별에 넘치는 광
안의군 『평양협동장의 영농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지고
있다.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들끓는 영농전투장들에서 다양
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
예술소조활동은 농장원들의 열
의를 더욱 높들어주고 있다.

작업의 일상에 유틸리는 흥겨
운 노래소리는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문화농촌의 정서
를 더욱 높이어준다.

로동통신원 신창현

만수대창작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현명한 영도밑에 굽지의 대미
술창작기지를 당처진 환희로
현실과 더욱 밝은 밤을 레일에
대하여 가슴벅차게 새겨안을
수 있었다.

만수대창작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현명한 영도밑에 굽지의 대미
술창작기지를 당처진 환희로
현실과 더욱 밝은 밤을 레일에
대하여 가슴벅차게 새겨안을
수 있었다.

장군님께서 몸소 현지지도하신

랑만을 꽂아우고 있다. 그런 가하면 무대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이곳에 술소조원들이 공연준비에 열중 하고 있었다.

『더욱 힘있고 아름답게 그
리고 간결하게.』

어떻게 하면 조각품을 더 둘
동으로 형상화하는가. 고도
의 생략과 함축속에서 작품의
본질이 뚜렷이 안겨오고 그 성
격을 읊어 반영하기 위한 끊임
없는 탐구와 사색이 그들속에
서 나래고 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유화분야에서도 당처진 앞
서나갈 자신만만한 퍼기와 열
정에 넘쳐있는 이곳 창작인동
무를 만났다.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문화창작전투는 유희창작단
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
다. 우리는 이곳에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창작가 리승일동
무를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유화분야에서도 당처진 앞
서나갈 자신만만한 퍼기와 열
정에 넘쳐있는 이곳 창작인동
무를 만났다.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문화창작전투는 유희창작단
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
다. 우리는 이곳에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창작가 리승일동
무를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유화분야에서도 당처진 앞
서나갈 자신만만한 퍼기와 열
정에 넘쳐있는 이곳 창작인동
무를 만났다.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문화창작전투는 유희창작단
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
다. 우리는 이곳에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창작가 리승일동
무를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유화분야에서도 당처진 앞
서나갈 자신만만한 퍼기와 열
정에 넘쳐있는 이곳 창작인동
무를 만났다.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문화창작전투는 유희창작단
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
다. 우리는 이곳에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창작가 리승일동
무를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유화분야에서도 당처진 앞
서나갈 자신만만한 퍼기와 열
정에 넘쳐있는 이곳 창작인동
무를 만났다.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문화창작전투는 유희창작단
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
다. 우리는 이곳에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창작가 리승일동
무를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유화분야에서도 당처진 앞
서나갈 자신만만한 퍼기와 열
정에 넘쳐있는 이곳 창작인동
무를 만났다.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문화창작전투는 유희창작단
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
다. 우리는 이곳에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창작가 리승일동
무를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유화분야에서도 당처진 앞
서나갈 자신만만한 퍼기와 열
정에 넘쳐있는 이곳 창작인동
무를 만났다.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문화창작전투는 유희창작단
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
다. 우리는 이곳에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창작가 리승일동
무를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유화분야에서도 당처진 앞
서나갈 자신만만한 퍼기와 열
정에 넘쳐있는 이곳 창작인동
무를 만났다.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문화창작전투는 유희창작단
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
다. 우리는 이곳에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창작가 리승일동
무를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유화분야에서도 당처진 앞
서나갈 자신만만한 퍼기와 열
정에 넘쳐있는 이곳 창작인동
무를 만났다.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문화창작전투는 유희창작단
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
다. 우리는 이곳에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창작가 리승일동
무를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유화분야에서도 당처진 앞
서나갈 자신만만한 퍼기와 열
정에 넘쳐있는 이곳 창작인동
무를 만났다.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문화창작전투는 유희창작단
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
다. 우리는 이곳에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창작가 리승일동
무를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유화분야에서도 당처진 앞
서나갈 자신만만한 퍼기와 열
정에 넘쳐있는 이곳 창작인동
무를 만났다.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문화창작전투는 유희창작단
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
다. 우리는 이곳에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창작가 리승일동
무를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유화분야에서도 당처진 앞
서나갈 자신만만한 퍼기와 열
정에 넘쳐있는 이곳 창작인동
무를 만났다.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문화창작전투는 유희창작단
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었
다. 우리는 이곳에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창작가 리승일동
무를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유화분야에서도 당처진 앞
서나갈 자신만만한 퍼기와 열
정에 넘쳐있는 이곳 창작인동
무를 만났다.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인 애국위업

조국통일운동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이룩해야 할 전민족적인 애국위업이다.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누구도 자신에게 지워진 조국통일운동의 신성한 의무를 외면할 권리가 없다.

조국통일운동의 발전과정은 순탄치 않다. 그것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전진하고 있다. 최근 북남사이에 조성된 국도의 긴장상태와 대화분위기의 파판 등은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이 의연히 계속되고 더욱더 악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조선민족인 전민족적인 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 꾀하고 멀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래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루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기여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인은 절제 조선민족이다. 민족의 단결을 실현할 때에만 조국통일운동은 험하게 전진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이며 조선민족앞에 나서는 지상의 과업이다. 나라의 분별로 하여 가장 큰 출

큼과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적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도 다른아닌 우리 민족이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래는 지난 기간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풀기한 투쟁을 벌리여왔다.

그러나 내외반통일세력은 우리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적대시하면서 대결과 분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이 조국통일운동을 저해하기 위한 민족분렬리 간접동에 빠져들고 있는 지금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 것은 조국통일운동의 성과와 관련되는 사활 문제이다. 북파 남, 해외의 전제 조선민족은 시대와 역사상에 있어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과 정체,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협화와 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멀쳐 나서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써만 활기있게 전진시킬 수 있는 대단결위업이다. 지난온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온 민족이 단결하여 힘차게 투쟁할 때 내외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도전과 부수며 벌리될 수 있으며 조국통일운동에서의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과 선로를 따라 전민족적법위에서 조직적인 힘을 강화함으로써 저들되는 시련과 난관을 끝고 조국통일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은 해내외 온 거래에게 민족의 단합에 대한 강령 한 지향과 의지를 안겨 주었으며 6. 1 5 통일시대의 사변적성과들을

정신으로 가슴 불태울 때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더욱 장성하게 되고 내외 분별주의세력의 그 어떤 도전책동도 것 부서버릴수 있다.

이념

북침 핵시험전쟁의 계단식 확대와 그 위험성

무분별한 재침 광기

지금 미국과 남조선 후보들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시험전쟁을 팽팽으로 벌리면서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이로 하여 선조반도에는 일의 시작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초기장상태가 조성되고 평화가 교란되고 있다.

《키 리풀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선조반도에서 전면전장을 일으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위험한 북침 핵시험전쟁이다. 군사상식으로 보면 이러한 전쟁 연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면전쟁도 발전야에만 있을 수 있는 매우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미제가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제는 지난 시기 해마다 남조선에서 벌려온다.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대체하는 《키 리풀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2008년부터 강행하고 있다. 울해에 그러한 전쟁 연습이 네번째로 벌리고 있다.

미제침략군과 남조선 피리군이 합동하여 벌리는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은 해가 바뀔수록 그에 참가하는 병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09년에는 미군 2만 6,000여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남조선과 해외에 주둔한 수많은 미군 병력이 동원되고 있다. 지난해의 《키 리풀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공군무력과 특수전병력을 이용한 선제공격전으로 일관되었다. 합동군사연습내용은 《대량살상무기제거작전》과 지휘거점타격과 같은 공격작전에 중점을 두었다. 지금까지 벌어진 《키 리풀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는 수십대의 전투폭격기를 투입하고 있는 미 해군 항공대 폭격기 《니미즈》 호, 전략미사일들을 탑재하고 있는 미 해군 항공대 폭격기 《오하이오》 호, 4척의 《이지스》 순양함과 7척의 구축함, 침수함 등으로 항공母함 전단을 구성하고 있는 《조지 워싱턴》호

등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철단군사장비들은 전형적인 핵타격 수단들이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도 최신형 핵전쟁 수단들이 참가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에 동원되는 무기와 전투수단들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종류도 핵전쟁 수행을 위한 병력과 핵력수단들로 확대되고 연습 내용에 핵공격을 가상한 연습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들은 그간이 아니라 그 종류도 핵전쟁 수행을 위한 병력과 핵력수단들로 확대되고 연습 내용에 핵공격을 가상한 연습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 공화국을 노린 핵시험 전쟁들이 있다. 그러나 《키 리풀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다른 전쟁 연습보다 더욱 치악하고 위험하다.

그 위험성은 미제의 북침 핵전쟁 계획이 종합적으로 최종검토 완성되고 있는데 있다.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에서 폐한 직후인 1953년 11월에 새로운 조선전쟁 도발을 위한 한미 비자전 계획 《8-53》을 작성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미제는 1960년대에

는 북침을 위한 《핑크루트 작전계획》을, 1980년대 말에는 우리 공화국을 《봉피》 시키기 위한 5단계 계획 《5 0 2 7》을 만들었다.

미제는 새 세기에 들어와 실행한 《작전계획》들을 더욱 구체화한 《작전계획》 5 0 2 7 우발 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들을 부단히 경신하고 있다.

미제가 지난해의 《키 리풀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환경을 위한 《작전계획》 5 0 2 7을 수립하였다.

미제는 새 세기에 들어와 실행한 《작전계획》 5 0 2 7 우발 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들을 부단히 경신하고 있다.

미제는 새 세기에 들어와 실행한 《작전계획》 5 0 2 7을 수립하였다.

미제는 새 세기에 들어와 실행한 《작전계획》 5 0 2 7을 수립하였다.

미제는 새 세기에 들어와 실행한 《작전계획》 5 0 2 7을 수립하였다.

미제는 새 세기에 들어와 실행한 《작전계획》 5 0 2 7을 수립하였다.

위한 북침전쟁계획이다.

《키 리풀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북침전쟁계획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계획들과 《경험》 등을 종합하고 첨부하여 제 2 조선전쟁 계획을 더욱 구체적인 전쟁 각본으로 완성한 것들이다.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의 보다 큰 위험성은 그것이 이 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데에 있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기본목적이다. 적들이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의 보다 큰 위험성은 그것이 이 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데에 있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기본목적이다. 적들이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의 보다 큰 위험성은 그것이 이 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데에 있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기본목적이다. 적들이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의 보다 큰 위험성은 그것이 이 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데에 있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기본목적이다. 적들이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의 보다 큰 위험성은 그것이 이 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데에 있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기본목적이다. 적들이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의 보다 큰 위험성은 그것이 이 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데에 있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기본목적이다. 적들이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의 보다 큰 위험성은 그것이 이 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데에 있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기본목적이다. 적들이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의 보다 큰 위험성은 그것이 이 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데에 있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기본목적이다. 적들이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의 보다 큰 위험성은 그것이 이 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데에 있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기본목적이다. 적들이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의 보다 큰 위험성은 그것이 이 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데에 있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기본목적이다. 적들이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의 보다 큰 위험성은 그것이 이 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데에 있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기본목적이다. 적들이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의 보다 큰 위험성은 그것이 이 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데에 있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에 기초하여 보충, 완성 하려 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의 핵 및 미세기지와 시설들을 일격에 타격하여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암살하자는 것이 호전 광기로

수습을 통해 노리는 기본목적이다. 적들이

《키 리풀브》, 《독수리》 핵시험전쟁에 기초하여 보충, 완성 하려 하고 있다.

우리 인민 자신 스스로 선택하고자 자기 손으로 일제세습 평등불에 우

고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열파

전자들의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열파

전자들의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열파

전자들의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열파

전자들의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열파

전자들의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열파

전자들의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열파

전자들의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열파

전자들의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열파

전자들의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열파

전자들의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와 남조선 후보들은 그 누구의

《금번사례》를 노리고 체제 《봉피》

를 둘러싸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열파

전자들의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에서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이 계속

제 치아망을 실현 하려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국정스레 떠